

발 간 등 룩 번 호

11-1320000-000044-10

2020

경찰백서

2020 경찰백서 발간사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향한 힘찬 도전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야말로 내 일을 여는 열쇠이자, 무한한 미래를 품은 씨앗입니다. 인류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왔습니다.

「경찰백서」 또한 경찰의 지난 날과 다가올 날을 잇는 매개체입니다. 경찰의 지난 여정을 기록하고 미래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며 치안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995년 제1호를 시작으로 사반세기 동안 가장 공신력 있는 경찰 역사서로서 실무와 학문 모든 영역에 걸쳐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천적 아이디어의 보고(寶庫)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제된 기록과 통계로 가득한 경찰백서의 가치는 앞으로 펼쳐질 ‘빅데이터’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올해도 2019년 한 해 동안 경찰의 활동과 성과를 총망라하여 「2020 경찰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백서는 경찰의 주요 활동을 4개 분야로 나눠 각종 정책과 성과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통계와 지표는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전자책(E-book) 제작과 QR코드 연계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는 전 경찰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찰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진전을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기본 사명인 ‘국민 안전’을 흔들림 없이 수호하였습니다. 특히, 초연결·초고속사회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 치안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감소하였고, 체감안전도와 치안고객만족도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17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 동아시아 최초로 ‘국제치안산업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K-COP’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찰의 뿌리를 조명하여 참된 경찰 정신을 함양하고, 인력·예산 등 치안인프라 확충과 경찰관 처우·조직문화 개선으로 현장의 자긍심을 높인 일도 주목할 만한 발자취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선진 형사사법체계로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일입니다. 2020년 1월 13일, ‘경검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경찰이 명실상부 온전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땀 흘렸던 경찰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경찰개혁’에 있어서도 팔목할 만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변호인 참여 확대, 영장·수사 심사관제 등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경찰대학 개혁을 비롯한 핵심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영향평가·대화경찰관 운영 등을 통해 민주·인권의 가치를 경찰행정 전반에 뿌리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바람은 그 어느 때 보다 큽니다. 더욱이, 전 지구적 위협이 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만들어내며 경찰활동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도전에 맞서, 경찰은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와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경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는 한편, 준비된 치안전문가로의 역량을 배양하여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는 제도와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치안정책 수립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어 국민의 마음을 얻고 경찰발전을 앞당기는 데 소중한 밀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경찰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창구로서 경찰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경찰청장

김 창 흥

2020

경찰백서



Contents

01

제1장

경찰개혁 제도화 및 경찰역사 바로 세우기

제1절 견제와 균형의 수사구조개혁 추진	14
제2절 경찰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24
제3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35
제4절 정보경찰·경찰대학 개혁	47
제5절 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53

02

제2장

주민을 안전하게 – 국민 일상의 안전 확보

제1절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82
제2절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추진	97
제3절 치안상황 대응역량고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140
제4절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활동 추진	151
제5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162
제6절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180



03

제3장

주민을 안전하게 - 범죄로부터 평온한 사회 구현

제1절 지능범죄 단속 및 검거	194
제2절 강력범죄 발생 동향 및 특징	210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228
제4절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안전 확보	233
제5절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및 재외국민 안전 확보	254

04

제4장

사회를 정의롭게

제1절 불법행위 엄정 단속,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282
제2절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290
제3절 경찰의 각종 경비활동	294
제4절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301
제5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309



05

제5장

현장을 활력있게

제1절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 등 치안인프라 확충	316
제2절 지원 기반 확충 및 내부 만족도 개선	337
제3절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보화 기반 강화	362
제4절 과학수사 역량 강화	376
제5절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	400

부록

경찰 조직 연혁	424
경찰 조직 및 기구	452
경찰 CI 및 표장	465
경찰청 소관 법령 현황	466
경찰청 예산 현황 ('20년)	471
경찰청 해외교류·주재관 현황	472
독립운동가 출신 및 장진호 전투 참전 경찰	475
표·그림 목차	486

2020

경찰백서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숫자로 보는
2020
경찰백서

국민 일상의 안전 확보



탄력순찰 주민요청

481,870건

순찰이행률

61.2%

범죄예방진단

총 33,456회 실시





성범죄 불법촬영

4.7% 4.9% 감소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0.05→0.03%)



교통사고 사망자

11.4% 감소
('18년 3,781명→'19년 3,349명)

숫자로 보는
2020
경찰백서

범죄로부터 평온한 사회 구현

마약류사범 등

총 10,411명 단속
(전년대비 28.4% 증가)



피싱사기

10,503건

생활사기

26,948건

금융사기

2,110건 검거



생활 속 불공정행위*

14,178건, 25,352명 단속

* 학사비리,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토착비리, 사무장요양병원,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비리



국외도피사범

401명 검거
(전년대비 31.9% 증가)